



# 고등교육 인적자원의 국제 이동 : 현황과 문제점

최 정 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선임연구원

## I. 들어가는 말

최근 수십 년간 교육의 국제적 이동은 규모, 다양성, 그리고 중요성 측면에서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더욱 뚜렷하다. 국경을 넘나드는 교육 이동은 학생·교수요원 등 자연인의 이동,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공동 교육과정 운영, 원격 교육(e-learning) 등의 방법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의 이동, 해외 분교, 해외 투자 등에 의한 외국에 설립되는 교육기관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중 해외 유학(특히 고등교육 수준)의 형태로 나타나는 인적자원의 이동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적 교육 이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고등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들의 국경 간 이동을 중심으로 고등교육 국제 이동의 현황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국제 이동이 확대된 배경과 고등교육 인

적자원의 국제 이동을 둘러싸고 생겨나는 새로운 문제, 즉 국경 간 고등교육 이동의 경제적 측면을 소개하고자 한다.

## II. 국제적 학생 이동 증가 현황

비교적 체계적인 전 세계 유학생 통계 자료가 확보된 1980년 이후로, 약 25년간 국제적 학생 이동은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2003년<sup>1)</sup>을 기준으로 모국이 아닌 외국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전 세계적으로 최소한 21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9할 이상은 OECD 회원국에서 유학하고 있다(OECD, 2005). 1980년과 2001년 사이의 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유학생 유치를 통한 교육서비스 수출을 국가적 주요 산업으로 전략적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1) 2006년 8월 현재 OECD Education Database에서 제공하는 가장 최신의 통계 자료는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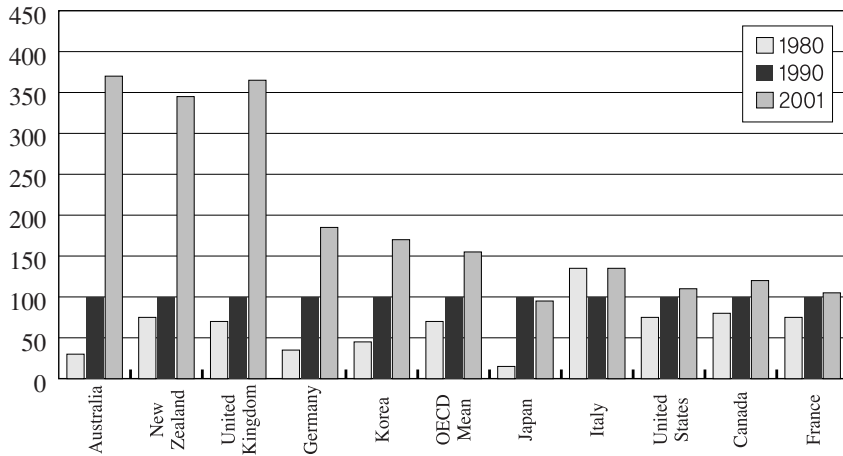
펼치고 있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급성장이 두드러진다. 특히 호주의 경우, 1980년과 2001년 사이 외국인 유학생 수가 10배가 넘게 증가하여 현재 세계 5위의 교육서비스 수출국으로 성장하였다(〈표 1〉 참조).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이외에 스페인, 핀란드, 포르투

갈, 헝가리 등 유럽에 위치한 국가들에서 외국인 유학생 수의 급격한 증가세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범유럽 차원에서 유럽연합이 지원하는 국제교육정책(예 : ERASMUS)의 성과로 풀이된다. 참고로 유럽연합은 1987년과 2002년 사이에 100만 명이 넘는 유럽연합 회

〈표 1〉 OECD 회원국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증가 추이, 1980~2001(1990=100)

국가명	1980	2001
Australia	30	382
Austria	64	172
Belgium	47	139
Canada	81	116
Czech Republic	76	161
Denmark	45	186
Finland	38	389
France	79	105
Germany	58	186
Hungary	83	340
Ireland	87	250
Italy	135	134
Japan	15	141
Korea	45	172
Netherlands	47	187
New Zealand	76	343
Norway	16	128
Poland	68	156
Portugal	35	296
Spain	107	389
Sweden	98	247
Switzerland	65	123
Turkey	87	217
United Kingdom	70	282
United States	77	117
OECD Mean	71	156

\* 출처 : OECD, 2004.



[그림 1] 주요 OECD 회원국의 외국인 유학생 증가 추이, 1980~2001(1990=100)

원국 대학생들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재정지원을 하였다. 반면 전통적으로 해외 유학생 유치 강국으로 손꼽히는 미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수의 증가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표 2〉와 〈표 3〉은 주요 외국인 유학생 유치국과 외국인 유학생 배출국 관련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측면에서는 2003년을 기준으로 586,316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보유한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어 중주국인 영국이 2위,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3, 4위를 차지하였고, 새롭게 고등교육 서비스 수출국으로 주목받고 있는 호주가 188,160명의 유학생을 유치하여 5위를 차지하였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86,505명의 유학생을 유치한 일본이 6위로 유일하게 10위권에 진입하고 있다. 주요 교육서비스 수출국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영국, 호주에서는 전체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자국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포함) 10명 중 1명 이상이 외국인 유학생일 정도로 외국

인 유학생의 비중이 높으며, 따라서 이들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운영이나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3년도를 기준으로 7,843명의 외국인이 국내 대학에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OECD에 보고하였으며, 이는 2003년도 외국인 유학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OECD 26개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권인 22위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해외 고등교육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의 출신 지역을 살펴보면, 세계 5대 유학생 배출국 중에서 4개국이 아시아 지역 국가이다. 이 부문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중국의 경우, 2003년 현재 271,294명의 중국 학생이 해외 고등교육기관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외국인 유학생 수의 약 13%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이다. 한국은 2001년에는 유학생 배출국 2위, 2003년에는 3위를 차지하였다. 인도의 경우, 해외 유학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들 중 하나이다. 특히 중국과는 달리 엄격한 인구 억제 정책을 고

〈표 2〉 세계 10대 교육서비스 수출국(유학생 유치국), 2001년, 2003년

국가명	2001년도 외국인 유학생 수	전체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수 대비 외국인 유학생 비율(%)	2003년도 외국인 유학생 수
United States	475,169	3.5	586,316
United Kingdom	225,722	10.9	255,233
German	199,132	9.6	240,619
France	147,402	7.3	221,567
Australia	110,789	13.9	188,160
Japan	63,637	1.6	86,505
Canada	40,667	4.6	자료 없음
Spain	39,944	2.2	53,639
Belgium	38,150	10.6	41,856
Austria	31,682	12.0	31,101

\* 출처 : OECD Education Database

〈표 3〉 세계 10대 교육서비스 수입국(유학생 배출국), 2001년, 2003년

국가명	2001년도 해외 고등교육기관 재학 중인 자국 유학생 수	전체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수 대비 해외 유학생 비율(%)	2003년도 해외 고등교육기관 재학 중인 자국 유학생 수
China	124,000	자료 없음	271,284
Korea	70,523	2.3	89,271
India	61,179	자료 없음	106,236
Greece	55,074	11.4	46,918
Japan	55,041	1.4	63,626
Germany	54,849	2.6	62,459
France	47,587	2.0	53,159
Turkey	44,204	2.6	47,561
Morocco	43,063	자료 없음	56,391
Italy	41,485	2.4	42,904

\* 출처 : OECD Education Database

수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고등교육 수요에 비해 인도 내의 고등교육 서비스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전 세계 고등교육 인적자원 이동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 Ⅲ. 지역적 편중 현상-국제적 학생 이동 현황의 주요 특징

국제적 학생 이동 현황 조사에서 드러나는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유학생들의 유학 목적지 선택에 있어서 일정한 패턴이 있으며, 특히

〈표 4〉 해외 유학생들의 지역적 분포(2003)<sup>2)</sup>

유학생들의 출신 지역	유학생들의 유학 목적지			
	유럽	북아메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80.8	12.6	0.6	3.2
북아메리카	39.3	48.4	2.8	7.4
라틴아메리카	44.8	44.3	1.2	2.5
아시아	28.7	38.0	12.7	16.0
오세아니아	20.0	27.6	4.2	47.8
전 세계	51.0	27.7	6.6	10.1

\* 출처 : OECD Education Database

이러한 패턴에서 지역적 집중 내지 편중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5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전체 OECD 회원국들이 유치한 유학생 수의 70%에 육박한다. 반대로 중국, 인도, 한국 등 3개국 출신의 해외 유학생 수는 전체 OECD 회원국이 유치한 유학생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러한 국제적 학생 이동의 지역 편중 현상을 대륙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 세계 고등교육 학생 이동 규모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 지역의 경우, 2003년 현재 100만 명 이상의 유럽 출신으로 해외 유학 중인 학생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8할 이상이 모국을 떠나 유럽 내 다른 국가를 유학지로 선택하였다. 이 같은 유럽 출신 유학생들의 유럽 집중 현상은 이 지역에서의 학생 이동이 '유럽 국가들의 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를 통한 유럽 시민의식 양성 및 유럽 사회 통합' 유럽연합의

정책적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즉, 1990년대 후반부터 급증한 유럽 출신 학생들의 국제적 이동은 유럽연합의 국제교육 프로그램(ERASMUS)에 따른 것으로 동 프로그램이 유럽 내 고등교육 기관들 간의 학생교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결과 유럽 유학생들이 유학 목적지로서 유럽을 집중적으로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 세계 유학생들이 유학 목적지로서의 미국을 두드러지게 선호하는 것도 국제적 학생 이동에서의 지역적 집중 현상을 나타내는 사실 중 하나이다. 2년제 공립대학에서부터 소규모 교육중심대학, 연구중심대학, 예술 특성화 대학 등 교육프로그램의 수준과 목적, 내용, 주된 수요자 등에 있어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추고 있는 미국은 전 세계 해외 유학생들 중 30%에 가까운 학생들을 끌어들이며 교육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국제적 학생 이동에서의 지역적 편중 현상은

2) 표에 제시된 숫자는 분포 비율을 나타낸다. 예컨대 〈표 4〉에서 세 번째 행의 80.8이 의미하는 것은 2003년을 기준으로 유럽 지역에 소재한 국가 출신으로 모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유학 중인 전체 해외 유학생 중 80.8%가 유럽 지역에서 수학하고 있다. 여섯 번째 행의 38.0이 의미하는 것은 이 지역 출신의 전체 유학생 중에서 38%의 학생들이 유학 목적지로 북아메리카 지역에 소재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무엇보다도 아시아 지역 관련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다(〈표 4〉 참조). 아시아 지역은 전 세계 고등교육 학생 이동 규모의 절반에 가까운 해외 유학생들을 배출하고 있는데 주로 중국, 인도, 한국, 일본, 대만 등 5개국이 주요 해외 유학생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은 외국 유학생 유치 측면에서는 크게 부진한 실정이다. 220만 명이 넘는 전체 해외 유학생 중에서 약 6.6%만이 유학 목적지로서 아시아 지역에 소재한 국가를 선택하였다. 더욱이 아시아 지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 대다수가 아시아 지역 출신으로, 아시아 이외의 지역에서 아시아 국가로 유학하는 학생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반면 아시아 지역 출신 유학생들은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에 각각 38%, 28.7%, 16%씩 분포되어 있으며 12.7%만이 아시아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이다. 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의 특정 지역 집중 현상은 국가별로 살펴보면 더욱 두드러지는데, 해외 유학중인 아시아 지역 출신 학생들 중 62.6%가 3개의 영어 사용 국가-미국, 영국, 호주-에 편중되어 있다.

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이 특정 지역-영어 사용 국가들-에 집중되는 현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겠지만 가장 단순한 차원에서는 중국, 한국, 일본, 대만 등 주요 유학생 배출국의 정치·경제적 특수성-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상의 특성과 미국과의 밀접한 정치적 관련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영어 구사 능력과 영어권 국가에서 취득한 학위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지닌 이들 비영어권 국가에서 높은 수입과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는 직업과의 상관성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특히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이들 국가의 경제적 성장은 국제적 차원의 경제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켰고, 특히 공학 분야, ICT, 금융 분야에서의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를 불러왔다. 또한 경제 성장은 해외 유학을 구매할 경제적 능력을 갖춘 계층을 확대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에서의 해외 유학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 IV. 해외 유학생이 선호하는 교육 프로그램

해외 유학생들이 선호하는 교육과정의 레벨은 유학생 출신 지역별로 크게 다르다. 아시아 지역 출신 유학생들의 경우, 자비 유학에 의한 학위 취득 전 과정에 등록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는데 특히 미국으로 진학하는 아시아계 학생들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유럽 지역에서는 일년 이내의 학생 상호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형태의 유학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유학생들의 90%는 한 학기 이내의 짧은 학점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OECD, 2004).

교육 프로그램 선택 측면에서 살펴본 해외 유학생들의 특징 중 하나는 모국에서 수학하는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학사학위 이후의 교육 과정에 등록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전체 고등교육 인구에서 석·박사 과정과 같은 학사후 과정에 등록한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17% 정도인데 반해 미국 고등교육 기관에 등록한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 약 45% 정도가 석·박사 과정에 재학하고 있다. 미국 전체 고등교육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4% 정도인 반면, 미국 전체 대학원과정 학생들 중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은

약 13.3%에 이르고 있다. 특히 260,000명이 넘는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9할 이상이 미국 카네기 고등교육기관 분류법상 Research I & II에 속하는 대규모 연구중심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www.iie.org). 영국의 경우도 석·박사과정 등록 학생은 전체 고등교육기관 등록 학생 수의 9% 정도에 지나지 않는 반면 영국 내 외국인 유학생의 절반 가량은 학사후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다.

해외 유학생들이 선택하는 학과를 살펴보면 비즈니스 관련 학과 및 공학, 과학 분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미국 내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 약 20%는 비즈니스 관련 학과에, 약 17.5%는 공학계열, 19.5%는 과학계열 학과에 등록하고 있다. 영국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공학, 과학, 사회과학 및 비즈니스 분야에 각각 15.1%, 14.3%, 39.3%의 학생 분포를 이루고 있다. 호주의 경우, 사회과학 및 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외국 학생들의 선호가 압도적이어서 약 45%의 외국 학생이 등록하였으며 공학, 과학 분야는 12%, 21.2%의 외국인 학생이 분포하고 있다. 반면 교육학 등은 해외 유학생들이 많이 선택하지 않는 분야이며 인문학과 예술 분야의 경우, 전체 고등교육 인구의 선호도보다는 약간 높은 정도로 해외 유학생들이 선호하고 있다(OECD Education Database).

## V. 고등교육의 국제적 이동 증가 요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지난 수십 년간 고등교

육 인적자원의 국경 간 이동은 그 규모에 있어서나 중요성에 있어서 유례 없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물론 이러한 급성장을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서 세계대전 이후 많은 나라에서 진행되어 온 고등교육의 대중화(Massification of Higher Education)현상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중세의 대학 설립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소수의 엘리트들에게만 가능했던 고등교육의 혜택이 세계대전 종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베이비붐, 경제규모의 확대, 민주주의의 확산 등에 의해 많은 사람들에게 가능해졌고, 이러한 고등교육 대중화는 국경을 넘나드는 고등교육(즉, 해외 유학)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고등교육을 육성하는 토양이 되었다. 고등교육의 대중화 이외에 고등교육 전문가들이 지적한 고등교육 인적자원의 국제 이동을 증가시킨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 1. 세계화(Globalization)와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세계화의 진전과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법으로서의 국제화의 필요성 증가는 국제적 학생 이동을 촉진시킨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 요인 중 하나이다. 세계 교육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의 국제화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고등교육의 국제적 이동을 증대시키는 가장 중대한 동인 중 하나일 것이다. 각국 정부나 고등교육기관들은 특히 고등교육 인적자원의 국제적 이동을 국제화 추진의 중요 전략으로 정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세계화와 국제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의 연관성에 대해 한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국제교육에 대

한 수요 증가는 세계화의 원인이자 결과이며, 동시에 세계화 현상 자체이기도 하다(The growing demand for international education is simultaneously a cause, consequences, and symptom of globalization, Rizvi et al., 2005).’

## 2. 과학기술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전은 여행과 통신(traveling and communication)에 필요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해외 유학을 좀 더 용이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자체가 정보통신기술, 생명과학 등 첨단과학, 금융과학 등 새로운 산업 분야를 개척하였고 이러한 산업계에서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배경은 해외 유학 증가의 촉매제로 작용하였다.

## 3. 세계 언어로서 영어의 위상 강화

역설적이게도 세계화의 진전은 통상언어로서 사용되던 영어의 위상 강화를 가져왔다. 또한 인터넷의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감에 따라 영어는 통상언어를 넘어 정보 창출과 확산 및 정보의 획득에 꼭 필요한 세계어로서 그 위상이 강화되었다. 영어의 위상 강화는 특히 아시아와 같은 비영어권 지역에서 영어 학습 열풍을 불러일으켰고, 이러한 경향은 상당 부분 해외 유학 확산에 기여하였다.

## 4. 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적 성장

지난 수십 년간 중국, 인도, 한국, 대만 등

몇몇 아시아 국가들은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룩하였다.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국제적 학생 이동 증가에 기여하였다. 첫째, 대외 의존도가 높은 이들 국가의 경제 성장은 국제적 차원의 통상 활동의 규모 증대를 가져왔고, 이는 영어 구사력과 국제적 경험을 갖춘 고급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 둘째, 국가 경제 성장은 중산층의 확대로 이어졌다. 상위 계층으로의 신분 상승을 열망하는 중산층은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를 자신들의 계층 이동의 주요 방편으로 여겼다. 이들에게 있어 해외 유학은 높은 수입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얻는 효율적 방법 중의 하나로 생각되었으며, 더 나아가 상류 계층의 표상이자 강한 욕망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상당한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이들 아시아 국가의 중산층 자녀들은 이전까지 극소수의 상류층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해외 유학 대열에 동참하게 되었고, 이러한 해외 유학 소비자 측면의 동인에 힘입어 국제적 학생 이동은 전례 없이 증가하였다(Rizvi 외, 2005).

## Ⅶ. 국제 학생 이동 관련 정책 기조 변화 : 경제적 관심의 증대

국제적 학생 이동 현상은 중세시대에 유럽에서 대학이 생겨난 이후로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현상이다. 국제적 학생 이동은, 유학생들의 지적, 문화적 소양을 향상시킨다는 교육적 목적에서, 때로는 유학생들을 보내고 받아들이는 관련국 간의 상호이해와 정치적 유대 관계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에서, 또는 유학생들의 습득해온 지식과 경험을 자국의 교육적,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해 활용할 목적에서, 또



는 유학생 유치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가 동기가 되어 국가와 개별 고등교육기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장려되기도 했다. 최근 국제 학생 이동에 대한 국가 또는 고등교육기관 차원에서의 정책 기조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정책의 초점이 교육적 관심에서 경제적인 측면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국경 간 이동은 필연적으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의 자금 이동을 유발한다.

해외 유학생들은 등록금, 교재 구입비 등 학비 이외에도 생활비, 유학생 본인 및 가족들의 여행 경비 등 많은 비용을 유학지에서 지출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학생들의 지출 규모는 1998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최소 3백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서비스 수출액의 약 3%에 달하는 수치이다(Larsen외, 2002).

교육서비스가 한 나라의 경제 부문에서 차

〈표 5〉 외국인 유학생들의 미국 경제 기여도(2004~2005)<sup>3)</sup>

(단위 : %)

외국인 유학생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한 순 기여 금액	
등록금에 의한 기여분	8,997,000,000
주거비, 잡비 등 기타 생활비에 의한 기여분	9,604,000,000
외국인 유학생의 지출에 의한 총 기여분	18,601,000,000
미국 정부, 대학 등 미국 기관의 재정 지원분(30.8%)	-5,733,000,000
외국인 유학생 동반 가족들의 추가 생활비	+421,000,000
외국인 유학생들과 그 가족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한 순 기여 금액	13,290,000,000

\* 출처 : 미국 국제교육원(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 IIE)

〈표 6〉 주요국의 외국인 유학생 비용 지출에 의한 교육서비스 수출 현황

국가명	1989		1997		2000	
	U.S.\$ million	전체 서비스 수출액 대비 비율(%)	U.S.\$ million	전체 서비스 수출액 대비 비율(%)	U.S.\$ million	전체 서비스 수출액 대비 비율(%)
U.S.	4,575	4.4	8,346	3.5	10,280	3.5
U.K.	2,214	4.5	4,080	4.3	3,758	3.2
Australia	58	6.6	2,190	11.8	2,155	11.8
New Zealand	4	...	280	6.6	199	4.7
Canada	530	3.0	595	1.9	796	2.1

\* 출처 : OECD(2002)

3) 상기 추정액은 2004~2005학년도 미국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565,039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근거로 작성된 수치임.

〈표 7〉 주요국의 자국 유학생 해외 소비에 의한 교육서비스 수입 현황

연도 국가명	1989		1997		2000	
	U.S.\$ million	전체 서비스 수입액 대비 비율(%)	U.S.\$ million	전체 서비스 수입액 대비 비율(%)	U.S.\$ million	전체 서비스 수입액 대비 비율(%)
U.S.	586	0.7	1,396	0.9	2,150	1.0
U.K.	67	0.2	182	0.2	150	0.2
Australia	178	1.3	410	2.2	356	2.0
New Zealand	...	...	...	...	...	...
Canada	258	1.1	532	1.4	602	1.4

\* 출처 : OECD(2002)

지하는 위치는 국가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주요 교육서비스 수출국들(즉, 외국인 유학생 유치국들)에서는 국제 학생 이동에 따른 수출액이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상당히 크다. 최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국인 미국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이 2004~2005학년도 동안 미국에서 지출한 금액은 180억 달러에 이른다. 이 중에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미국 정부, 대학 등의 재정 지원분 30%를 제외하고 다시 외국인 유학생들의 동반 가족들이 지출하는 비용을 더한 후 산정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의한 수출 총액은 약 133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2005년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총액 438억 달러의 약 3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표 5〉 참조).

최근 국가적 차원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도하며 교육서비스 수출에 앞장서는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 교육서비스 분야가 서비스 부문 수출액의 3위(호주), 4위(뉴질랜드)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 전체 수출 총액 기준으로는 각각 14위, 15위를 차지할 정도로 교육서비스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다(OECD, 2004).

〈표 6〉과 〈표 7〉은 각각 주요 외국인 유학생 유치국의 교육 서비스 관련 수출액과 수입액을 제시하고 있다. 상기 자료에 따르면 교육서비스 수출액과 수입액 모두 세계 최대 수준인 미국의 경우, 고등교육 인적자원의 국제 교류 측면에서 가장 활발한 국가로 평가받기에 손색이 없다. 반면 영국은 수출에 비해 교육서비스의 수입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경제적 이익은 더 많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제 학생 이동의 규모가 커감에 따라 그에 따르는 경제적 관심 또한 커져갈 것이다. 무엇보다도 교육서비스 수출의 경제적 잠재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고, 이러한 인식 제고는 더 많은 나라와 고등교육기관들이 높은 이윤 창출이 가능한 교육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이고자 벌이는 극심한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더하여(WTO 체제에서 논의되는 GATS나 FTA와 같은) 양자 또는 다자 간 무역 협상·협정에 교육서비스의 한 품목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흐름은 국제 학생 이동에 있어서 경제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국경 간 학생 이동에 대한 경제적 관심 증대

는 교육의 국제적 이동과 관련하여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교육은 교역이 가능한 통상 품목이라기보다는 비영리를 근간으로 하는 공공서비스로서 간주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윤창출 수단으로서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은 현재까지 계속되어 온 교육의 근본적 성격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앞에서 제시된 것처럼 현재 국제 학생 이동의 주된 흐름이 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해외 유학생 배출국들은 대개 자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유학생 규모와 해외로 나가는 자국 유학생 규모 사이의 심한 불균형이 야기하는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현재 개발도상국들이 겪고 있는 유학생 유출과 유입 사이의 불균형은 이들 국가들의 무역수지를 악화시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해외 유학생 증가와 더불어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유학 목적지에서의 학비 급증으로 인해 가중될 전망이다.

## VII. 나가는 말

오랫동안 국제적인 학생 이동은 교육·문화·정치 그리고 경제적 동기 등에 의해 권장되어 왔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사회·경제 부분에서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감에 따라 세계 각국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회 각 부문에서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특히 고등교육 부문에서의 국제화를 이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로서 국제교육 기회 확대와 해외 유학생 유치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기조에 힘입어 국제적 학생 이동은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 국제적 학생 이동이 양적으로 확대되어감에 따라 세계 고등교육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고등교육 인적자원의 흐름이 지역적으로 편중되면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제적 학생 이동이 저개발국 또는 개발도상국의 교육적, 경제적 역량 강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와 대학들도 몇 년 전부터 고등교육 국제화의 초점을, 보내는 유학에서 받아들이는 유학으로 전환하고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유학생의 유출과 유입을 모두 포함하는 국제적 학생 이동은 이제 그 규모나 범위, 중요성에 있어서 고등교육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 유학이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 정책을 논의할 때, 좁게는 두뇌 유출, 경제적 파급 효과, 우리 고등교육 역량 강화, 국내 고등교육의 균형 발전, 노동시장 인력 공급 문제를, 넓게는 다른 나라와의 정치·경제적 유대 관계에 대한 근본 전략 등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포괄적이며 발전적인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국내외를 포함하는 고등교육 인적자원 이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 참고 자료

De Wit, H. (2002).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Europe*. Westport, CN: Greenwood Press.

- Harman, G. (2004). New directions in internationalizing higher education: Australia's development as an exporter of higher education services. *Higher Education Policy*, 17(1), 101-120.
- Knight, J. (2002). Trade Creep: Implications of GATS for Higher Education Policy.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28, 5-7.
- Knight, J. & De Wit, H. (eds.) (1997). *Internationalisation in Higher Education in Asia Pacific Countries*. Amsterdam: The EAIE.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2). *Educational Policy Analysis*. OECD, Paris.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4). *Internationalisation and Trade in Higher Education: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ECD, Paris.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5).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OECD, Paris.
- Rizvi, F., Engel, L., Nandyala, A., Rutkowski, D., & Sparks, Throsby, D. (1999). *Financing and Effects of Internationalisation in Higher Education: The Economic Costs and Benefits of International Student Flows*. 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OECD, Paris.
-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IIE). [www.iie.org](http://www.iie.org)
- OECD Education Database.